

# KIA 타이거즈 V10 위업...DJ·노무현 역사 속으로

★ 2009년 뜬 별 ★

한 해가 저물어간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에도 국내외에서 수많은 인물이 뜨고 졌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기쁨과 희망을 선사한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도 있다. 올 한해 지구촌 화제의 인물들을 정리한다.

★ 2009년 진 별 ★



### 국내

▲'골프 지존' 신지애=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최연소 상금왕, 신인 상금왕을 석권하며 최고의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신지애는 역대 신인 최다 상금, 다승 부문 공동 1위, 언더파라운드 확률 1위 등을 함께 기록하며 '골프 지존'의 입지를 굳혔다.



아쉽게도 시즌 최종전에서 통탄의 보기를 범하는 바람에 1점 차로 오초야에게 올해의 선수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피겨 요정' 김연아=김연아는 7살이 되던 1996년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다. 올해 2009~2010 시즌에서 점프, 스핀, 스카일립, 스텝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프로그램 수행능력을 보이며 그랑프리 스케이팅 아메리카에서는 76.28로 세계 최고점을, 에릭봉파르에서는 133.95로 프리프로그램 세계 최고점을 경신했다.

▲'바람의 아들' 양용은=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아시아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양용은은 8월17일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우승하며 깜짝 스타로 떠올랐다. 양용은은 올해 3월 혼다클래식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하며 비상하기 시작더니 5개월만에 PGA 챔피언십 우승컵까지 들어올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지난 해 4월 특급 수사 여파로 아버지 이근희 회장이 퇴진하면서 삼성전자의 최고고객책임자(CCO) 자리를 내뱉다가 1년8개월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경영 일선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한 지 18년 만의 일이다. 그는 부사장 승진을 발판 삼아 삼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급속히 굳혀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10' 금지탑 KIA타이거즈=KIA타이거즈가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V10' 위업을 달성했다. 1980~1990년대 지역민들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줬던 해태타이거즈가 1997년 10월25일 잠실구장에서 LG를 꺾고 9번째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꼭 12년 만이다. 그 뒤 IMF 직격탄을 맞고 2001년 후반기 간판을 KIA로 바꿔 단 이후 매년 하위권에 맴돌다 올해 정규시즌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금지탑을 쌓은 것이다.

### 국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지난 1월 48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희망과 변화'와 '새로운 미국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백악관에 입성했지만, 초반부터 금융위기와 실업문제 등의 난제를 맞으면서 힘든 첫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논란 속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세계를 다시 한 번 깜짝 놀라게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지난해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정부의 외교를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로 취임, 국제무대를 누비고 있다. 취임 초기 '정적(政敵)간의 동거'가 얼마나 갈지 회의적 시각도 많았지만,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핵심 장관으로 떠올랐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지난 5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 8월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을 대파, 총리로 입성하는 등 54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끌어내면서 일본 정치사의 새 장을 열었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민주당을 이끌며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각료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벌써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수전 보일=영국 TV의 장기자랑 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 출연,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47세의 아줌마, 존스런 외모와 형클어진 헤어 스타일에 허름한 옷차림으로 TV에 나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을 열창해 기립박수를 받았고, 이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전 세계 네티즌을 사로잡았다.

▲자메이카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지난 8월 독일 베를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9초58)와 200m(19초19) 세계기록을 작성하며 3관왕에 오른 자메이카 출신의 '단거리 황제',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해성과 같이 등장해 남자 100m(9초69)와 200m(19초30), 400m계주(37초10)에서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바 있다.

### 국내

▲김대중 전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이 85세를 일기로 지난 8월18일 서거했다. 1925년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1년 대선에서 신민당 후보로 나섰으나 석패한 뒤 1987년, 1992년 대선에서 연거푸 낙선한 끝에 1997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고인은 민주화 투쟁과 인권신장, 통일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그 공로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지난 5월23일 투신해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뒤 5공 청문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고인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지역주의 타파와 권위주의 청산에 힘썼고 2004년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했다.

▲김수환 추기경=한국인 최초 추기경이었던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은 2월16일 87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고인은 1951년 사제품을 받고 1968년 대구교로 승품해 서울대교구장에 올랐으며 1969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인 최초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고인은 선종하면서 각막을 기증해 국내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산악인 고미영=여성 산악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봉 등정에 도전하던 산악인 고미영씨는 지난 7월 11번째로 오른 히말라야 낭가파르बाट에서 하산하다 실족사했다. 고씨는 2006년부터 고산 등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올레한 히말라야 마카루, 칸첸중가, 다울라기리 등을 숨가쁘게 오르내렸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한국 수영의 선진화를 이끈 위대한 개척자 조오련씨는 지난 8월4일 57세를 일기로 고향인 해남의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1969년 전국체전 서울시 예선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를 석권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조씨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50차례나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인은 1980년 최초로 대한해협을 13시간 16분 만에 횡단하고 2008년에는 독도를 33바퀴 헤엄쳐 도는 등 잠시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 국제

▲마이클 잭슨=팝의 황제로 군림하다 지난 6월25일 50세를 일기로 갑자기 타계해 전 세계를 슬픔에 안겼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마취제와 진정제 투약에 따른 살인으로 판명됐다. 1969년 형제들과 '잭슨 파이브'로 데뷔했으며, 1982년 '빌리 진', '비트 잇'이 수록된 앨범 '스틸러'로 전성기를 열었다. 2003년 소년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면서 명성에 타격을 입었다.



▲타이거 우즈=1996년 프로 골프에 입문, '골프 황제'로 세계를 평정했으나 단 한 건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1975년 미국인 아버지와 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프로로 전향한 뒤 주요 대회를 석권하며 42주 만에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11월27일 플로리다주 자택 앞에서 낸 교통사고 때문에 불륜설에 휩싸였으며, 결국 14일 만에 외도를 인정하고 '무기론' 골프 중단을 선언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현대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 지난 10월30일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인간의 제도와 현상 속에 숨겨진 '구조'를 찾아내 '구조주의 인류학'을 창시했으며, 프랑스에서 장 폴 사르트르 이후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된다.

▲조지 W. 부시=2001년부터 8년간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다 올해 1월 미 대통령 가운데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초라하게 퇴장했다.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지율을 90%까지 끌어올렸으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면서 대외정책에 실패했다는 거센 비난에 시달렸다.

▲에드워드 케네디=지난 8월25일 뇌종양으로 별세해 미국 정치 명문 케네디 가(家) 1세대의 막을 내렸다. 향년 77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막내 동생으로, 1962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미 의회사의 산 증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후원자를 자임하며 건강보험 개혁을 적극 추진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노선을 지지한 지한파 정치인 이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퍼시스 쇼룸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층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퍼시스 의료기기 전시관

퍼시스

FURSYS TEETS UOON